

관음보살 좌상

무한한 자비의 여신인 관음보살은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되는데, 이 상은 무색의 옷과 머리 장식으로 미루어 백의관음(白衣觀音)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상은 님나지 절의 다른 보물들처럼 역사적 유산이나 문화재가 아니라 1974년에 만들어진 최근의 작품으로서 양식상 님나지 절에 있는 다른 관음상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. 일본과 중국에서 조각의 전통은 11세기 무렵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, 이 상에서는 그 분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혀 다른 두 가지 양식으로 변화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몸에 걸치고 있는 장식품에 실제 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안료로 한 채색 등 중국 조각의 전통적인 요소도 볼 수 있습니다.